

비수기 접어든 한약시장 '냉랭' 국산 약재 전반적 하락세 경향

지난해 하반기 들어서면서 상승세를 보이던 국산약재 시세가 지난 11월중순 이후 햇것 출하가 본격화됨과 동시에 거래량이 뚜렷어지면서 전반적인 하락세가 눈에 띈다. 한약시장 전체가 겨울철 비수기에 접어든 때문이다.

지난해 작황부진으로 물량공급이 달리는 산수유, 오미자, 시호등의 약재도 계속적인 상승곡선을 그려가다 최근들어 다소 주춤한 상태이다.

수급조절품목으로 수입이 제한돼 있는 이들 약재들이 식품으로 반입돼 시장에서 변칙유통됨으로서 당초 예상했던 상한가에는 못미치고 있는것. 또 지난해 수급조절위원회의 결과 오미자, 맥문동, 시호, 지황, 산수유, 창출등의 약재가 올 1월중 반입될 예정이어서 이를 의식한 때문인듯 이들 품목들에 대한 거래가 뜸하고 시세도 다소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예년보다 수확량이 대폭 감소한 천궁, 황기, 당귀 등의 약재도 정상적인 한약시장 경기라면 상승세를 기록할 전망이지만 거래부진한데다 식품으로 반입된 수입약재 영향으로 기대치에는 못미치고 있는 상황. 황기만 하더라도 지난 연말 상당량이 식품으로 반입돼 공공연하게 시중 유통되고 있거나 올 초 반입될 예정이라는 시장상인들의 귀띔이어서 절름발이 수급조절정책의 단면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한약시장 경기가 1,2월까지의 여전히 냉랭할 것이란 전망속에 국산 초재시세도 보합세를 이루거나 다소 내림세 경향을 띠 전망이다.

황기

경동약령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12월말 현재 근당(6백g 기준) 도매시세는 1년근 소황기가 6천5백원(통)대로 지난 11월보다 다소 상승세. 3년근, 6년근 이상의 대황기는 각각 통자로 근당 1만6천원, 2만7천원선으로 보합세다.

98년도 생산량은 예년수준의 절반에도 못미칠 만큼 감소했지만 물량공급이 달릴것으로 전망한 수입업자들에 의해 식품으로 반입,

변칙유통됨에 따라 예상만큼의 상한가는 이루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경기가 예년수준을 유지한다면 황기값이 다소 오름세를 보일 만도 하지만 지난 연말 들어서면서 거래부진한 가운데 한약시장 경기가 꾀꾀얼어붙어 시세등락에는 큰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산약

위장을 보호하는 약재로 또 소변 잦음증상등을 치료하는 민간요법으로도 고루 이용되는 마(산약)는 최근 햇것이 출하되면서 시세가 다소 내림세다. 12월말 현재 경동약령시장내에서 거래되는 근당(6백g 기준) 도매시세는 재배산(식산약)이 6천원선, 자연산(생산약)이 1만2천5백원선. 생산량이 예년보다 대폭 감소시킨 했으나 지난 재고량이 상당량 쌓여있어 산약값이 좀처럼 회복세로 돌아서지 못하고 있는듯. 계속되고 있는 거래부진 현상속에서 산약시세도 당분간 보합세 유지할 전망이다.

천궁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국산약재들중 드물게 상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는 품목. 12월말 현재 소비지에서 거래되고 있는 근당(6백g기준) 도매시세는 토천궁이 6천5백원선(절), 일천궁이 4천7백원선으로 지난 11월 시세보다 9%포인트 증가. 천궁 역시 98년 햇것출하량이 예년 절반수준에도 못미칠 만큼 재배면적이 감소했고 작황도 부진했기 때문이다. 어느정도 회복된 경기라면 훨씬 더 큰폭의 상한가를 기대할 만도 하지만 얼음장 경기 영향으로 비교적 소폭의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것. 1,2월이 지나고 어느정도 정상적인 시장경기 흐름이 유지된다면 다소 상승세를 보일 것이란 전망이다.

오미자

물량이 일단 귀할뿐 아니라 거래부진으로 매매가 거의 없는 상황이어서 시세형성도 애매한 형편이다. 물량을 쥐고 있는 업자들의 경우 근당(6백g기준) 1만5천원 선이 부르는 값이

지만 1월중 통관예정인 수입오미자 물량을 의식, 다소 주춤한 상황이다. 수입오미자가 시중에 풀릴경우 오미자 시세도 다소 하락세를 보일 전망이다.

천마

수입천마 반입감소 영향으로 그동안 꾸준이 상승세를 기록했던 국산재배천마가 98년 햇것이 본격 출하되면서 다소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12월말 현재 경동약령시장 내에서 짝으로 거래되는 근당(6백g기준) 도매시세는 1만7천5백원선으로 지난 11월시세보다 1천5백원폭으로 하락. 거래부진속에 시세는 다소 내림세 보일 전망이다.

맥문동

12월말 현재 경동약령시장내에서 거래되는 맥문동(청양산) 도매시세는 근당(6백g기준) 1만3천5백원(거심), 1만2천5백원(막막)선으로 보합세를 이루고 있다. 물량 많지 않지만 수입맥문동이 1월중 통관될 예정이고 또 4월이면 햇것이 출하될 시기여서 맥문동시세는 앞으로 더 떨어질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산수유

작황부진으로 햇것 출하량이 거의 없다시피 했던 산수유는 물량이 귀해 시세도 꾸준한 상승세를 기록. 지난 11월 근당(6백g기준) 1만9천원선까지 거래되기도 했으나 12월말 현재 1만5천원(상품), 1만2천원(중품) 선으로 제자리. 12월들어 거래부진한데다 식품으로 무분별하게 반입된 수입 산수유의 영향으로 상승세 주춤한 상황이다. 1월중 반입될 예정인 쿼터품이 시중 유통될 경우 다소 내림세 보일 전망이다.

건강

충남 서산이 주산지인 건강은 지난 하반기 생강시세가 크게 하락한 때문인지 건강 생산량이 예년보다 증가. 시세도 지난 11월말 기준 근당(6백g기준) 5천원선에 거래되던 것이 12월말 현재 3천7백원 선으로 다소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문정희>

새해 달라지는 농산정책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지원개선

농산물포장센터 지원조건을 생산자조직은 국고 보조 20%, 용자 40%, 지방교부금 20%, 자부담 20%로 보조금 일부를 용자로 전환하고 민간전문유통업체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운영주체는 반드시 시설설치자이던 것을 공공건설, 민간운영방식이 도입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공투자건설 및 민간전문유통업체에 위탁운영도 가능해진다.

농산물저온유통기반 확충

농산물유통의 선진화를 위해 농어가용 소형저온저장고, 냉장담차, 저온저장고, 예냉시설 등에 대한 지원이 신설된다. 지원대상은 주산지 생산자조직, 농업인, 민간유통업체이며 조건은 보조 20%, 용자 60%이다.

농수산물도매시장및 공판장 건설 국고보조율 상향조정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설은 지역 구분없이 국고보조율이 70%로 상향조정되고 농산물 공판장도 국고 40%, 지방비 10%, 국고용자 30%, 자부담 20%로 용자와 자부담이 늘어난다.

농산물직거래 시설지원 신설

지역단위 농산물거래 활성화를 위해 직거래장터 시설비가 지원된다. 사업단가 2억원으로 국고보조 70%, 지방비 30%이며 지원대상은 인구 50만 이상 도시다. 농민시장 건설은 사업단가 2억~6억원(보조 50%, 용자 20%, 자부담 30%)으로 지원대상은 농협 회원조합이다.

농산물 안전성조사 강화

안전한 농산물 생산공급을 위해 안전성조사 결과 부적합한 농산물에 대한 폐기 등의 고지내용을 불이행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인삼류외 수출업관리 규제폐지및 완화

5년근이상 인삼의 경작지정제와 제조원료용 수삼수확시 신고·입회·봉인제도가 폐지된다. 수삼품질인증제 범위가 확대되고 수출입신고제는 폐지된다.

종자업의 등록 규제폐지및 완화

국가품종목록등재대상에서 수입되는 사료용 옥수수는 제외되고 재배금지 명령제도는 폐지된다. 종자매매업 신고제도와 해외채종종자의 수입신고제도 및 종자비축명령제도 각각 폐지된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실시

친환경농업 이행농가에 대한 직접지불제가 실시된다. 지급단가는 1ha당 52만4천원이며 지원대상은 상수원보호구역등 환경규제지역내에서 친환경농업을 이행하는 농가및 생산자조직이다. 환경농업실천농가들을 육성하기 위해 환경농산물을 표시 사용할 경우 신고해야 한다.

친환경농업마을 조성

환경농업 기술보급 확산을 위해 30ha이상의 비재배지역에 친환경농업마을이 조성된다. 지원단가는 4천5백40만원.

영림계획작성 의무제를 임의제로 전환

산림소유자가 영림계획을 작성,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 산림경영토록 하던 것을 산림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영림계획을 작성해 인가받도록 자율성이 부여된다.

독립가·임업후계자 자격요건 완화

소유 산림면적 기준이 독립가는 30ha에서 20ha로, 임업후계자는 10ha에서 5ha로 완화된다.

임간소득증대를 위한 대부제도 신설

국유림을 무상으로 빌려줘 산채·약용식물을 재배해 민간 소득증대와 국유림 경영효율성을 높인다.